

# 한중일 3국 신문의 8·15 보도 비교 분석\*

서라미\*\*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석사과정)

정재민\*\*\*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조교수)

---

본 연구는 한 중 일 3국 신문의 2005년 8·15 60주년 보도를 비교함으로써 3국간 과거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신문별, 국가별 그리고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별로 기사량, 기사 유형, 정보원, 강조하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5년 8월 한 달간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인민일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보도량에 있어 한국과 중국에 비해 일본 신문의 기사량이 현저히 적었다. 기사 유형의 경우 한국과 중국 신문들은 스토레이트 기사가 많은 반면 일본 신문들은 의견 기사에 치중하였다. 정보원의 이용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정부기관에, 일본은 일반인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중국이 보다 공식적인 입장에서 8·15를 바라보고 있고, 특히 중국은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본은 보도량을 줄여 8·15를 회피하면서, 정부 측의 공식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민간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강조한 내용 역시 한국과 중국은 자국동향을 주로 보도하면서 8·15의 의미를 평가하는 반면, 일본은 과거를 회고하며 민간인의 입장에서 전쟁의 피해를 전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삼국 신문의 8·15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신문사 자체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국익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주제어: 8·15, 한중일, 국익, 보도량, 기사유형, 정보원, 보도주제

---

\* 논문의 초고를 꼼꼼히 읽고 조언해 주신 인천대학교 반현 교수님과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sizac0@swu.ac.kr

\*\*\* jjung@swu.ac.kr

## 1. 문제제기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동아시아론<sup>1)</sup>이 주요 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최진덕, 1999). 최근 동아시아론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거론된다(백영서·최영식, 1997). 동아시아 지역이 주목할 만한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고 이에 힘입어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정체성 표현의 욕구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론은 지난 세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옥연, 2000).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으로 제국 확장의 열망에 불을 지피면서 시작된 일본의 침략전쟁은 왜곡된 대동아 공영권(大東亞共營權)을 만들어 내며 주변 국가들의 민족 국가로의 성장을 더디게 하였다. 나아가 3국의 공동된 역사 인식의 형성을 막는 장벽이 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을 낳고 있다. 독도와 고구려 문제, 위안부와 신사 참배 문제, 조선족 문제 등 근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많은 외교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는 3국의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논의될 수 없다.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이라는 동질의 상처를 안은 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민족 국가를 형성해 온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안수찬, 2005).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광복절, 항일전쟁승리기념일, 종전기념일로 불리고 있는 이 날은 현재 3국의 대(對)동아시아 정치 외교의 뿌리이자 각종 역사적 마찰의 시발점이 되고

1)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는 이와나미 강좌(岩波講座) 시리즈 중 『세계역사』 제4권에 실린 아라 마쓰오(荒松雄, 1970)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그는 한자·율령제(律令制)·유교사상·대승불교(大乘佛敎)의 네 가지를 동아시아를 규정짓는 공통적 문화요소로 들었으며 이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계를 동아시아라고 하였다. 또한 정재서(1999)는 서양으로부터의 문제에 대한 방어 및 생존 논리로 서 서양 대 동양이라는 이항 대립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강조되었으며 특히 근대와 현대, 두 시기에 동아시아 3국 간의 강박적 동화 및 획일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고 있다.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2005년 8·15 60주년 기념 특집보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3국의 역사 인식을 점검해 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3국의 주요 신문에 나타난 보도 태도를 비교하여 각 국가들이 8·15 보도에 있어서 어떤 방식에 의존하는가를 분석하고, 각국의 민족주의가 과연 8·15 보도에 실제로 반영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동일한 과거의 사안을 한·중·일 각국의 신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3국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2. 문헌 연구

미디어에 대한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미디어와 현실과의 관계 정립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미디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현실 반영론(reflection of reality)이다. 이는 미디어가 현실을 거울과 같이 그대로 보여준다는 관점으로 보도의 사실성, 객관성, 공정성 등과 같은 뉴스의 기본 원칙과도 연계된다. 다른 하나는 현실이 미디어에 의해 재구성되어 진다고 보는 현실 구성론(construction of reality)으로 미디어는 스스로가 추구하는 틀에 따라 현실을 구성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나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특히 후자의 관점에 기초하여, 한·중·일 3국이 각자의 사회 구조 안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상이한 평가와 규정을 내렸으리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 1) 뉴스의 현실 구성

언론학 연구가 현실 반영론에서 현실 구성론으로 전환하는 이론적 토양이 된 것은 리프만(Lippman, 1997)의 ‘바깥 세계(The World Outside)’와 ‘우리

머릿속의 그림(The Pictures in Our Heads)'이라는 회두였다. 리프만은 객관적 현실로서 존재하는 바깥 세계와 픽션을 매개로 재구성되는 우리 머릿속의 그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반응이라는 삼각관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사회적 구성을 통해 생산된 뉴스와 미디어 담론이 개인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의 인지적 구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틀린(Gitlin, 1980) 역시 뉴스는 생산자에 의해 선택, 강조, 배제되면서 재구성되고, 재구성된 현실을 수용자가 인식하게 된다고 밝힌다. 즉, 미디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사건과 상황에 고유의 형식을 부여하고, 그러한 형식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어떤 한 측면을 희생시키고, 다른 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구성은 개인의 현실에 대한 해석과 태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뉴스의 현실구성이론을 강조한 터크만(Tuchman, 1995)은 뉴스를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규정하였다. 미디어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조건에 따라 뉴스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특히 뉴스 생산자를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주관적 의식 활동 등이 뉴스 생산 과정에 있어서 틀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결국 미디어의 내용은 뉴스든 오락이든 다양한 힘에 의해 제한받고 축소되며 또 확대 형성되고 이는 다시 수용자의 인지와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미디어의 내용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미디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화이트(White, 1950)에서 비롯된다. 그는 저널리스트가 미디어 메시지의 게이트키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기자들이 일상의 사건에서 무엇을 뉴스로 보도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브리드(Breed, 1955)는 기자들이 어떻게 조직 내부에서 사회화되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뉴스의 선정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냈다. 그는 뉴스를 생산해 내야 하는 조직의 목표와 전문 언론인으로서 기자 개인이 추구하는 객관주의가 상충될 때 기자들은 조직의 목표에 따르는 사회화 과정

을 겪는다고 결론지었다.

기자들과 조직의 관행을 넘어서 소유주가 미디어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받아왔다. 복수 미디어를 소유한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매체 간 내용이 동질화되어가고 모기업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증 연구들은 독립 지역신문과 복수신문을 소유한 기업의 신문기사를 분석하고(Coulson, 1994), 복수신문기업에 인수되기 이전과 이후의 신문기사를 분석하고(Browning, Grierson & Howard, 1984), 모기업의 미디어 상품과 인수합병에 대한 자회사 매체들의 기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Jung, 2002; Lee & Hwang, 1997) 소유주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일련의 학자들이 미디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몇 가지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내용물의 일차 생산자인 기자나 프로듀서의 태도와 조직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 소유 형태와 소유주의 성향, 조직 외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그리고 국가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요인들이다. 결과적으로 뉴스 안에는 뉴스 생산자 개인의 가치관을 비롯하여 그가 속해 있는 미디어 조직의 조직관, 그 조직이 속해 있는 국가의 이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뉴스 생산자가 그것들부터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Gans, 1979; Gitlin, 1980; Shoemaker & Reese, 1996).

## 2) 국제 관계와 보도

슈메이커와 리스(Shoemaker & Reese, 1996)는 미디어의 내용을 결정짓는 요인을 위계적 모델로 제시하면서 가장 거시적인 개념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를 꼽았다. 사건의 보도에 있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현실의 재구성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국가 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도는 사건 그 자체의 객관적 전달보다는 해당 국가들의 사회, 문화,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달리 해석되며, 국가이익의 범주 안에서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적 이슈의 경우 뉴스를 결정짓는 요인들 가운데 기자나 조직의 관행, 소유주와 외부세력의 영향력을 넘어서

국가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도 형태와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미디어가 국제적 갈등을 보도하는데 국익(National Interest)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Bennet, 2003; Chomsky, 2002; 윤영철, 1992/1998; 이창호, 2005). 그들에 의하면 국익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국가적 이념까지도 내포하는 가치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며 언론인들은 그들 나라의 궁극적 이해에 기초해 국제 뉴스를 선택하고 보도한다. 따라서 모든 뉴스 가치들 중 자민족 중심주의가 국제 갈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때 뉴스는 정보의 객관적 공급원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문화적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준거의 틀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팬과 그의 동료들(Pan, Lee, Chan & So, 1999)은 중국, 대만 그리고 홍콩의 미디어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에 대한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의 미디어는 “국민적 업적, 국민 축제, 국민 가족, 밝은 미래” 등으로 홍콩 반환을 찬양했으나 홍콩 미디어는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 모델, 민주주의 추구, 영국 유산, 희망과 두려움의 교차” 등으로 표현했다. 특히 홍콩 언론은 1989년 중국 천안문 민주화 항쟁을 짓밟았던 중국인민군이 홍콩의 사회정치적인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두려움을 보도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미디어가 홍콩 반환과 같은 사건을 국익과 그들 국가의 대외 정책 의제와 조화되도록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의 천안문 운동도 국익에 따라 상이하게 보도됐다. 리친첸과 양정혜(Li & Yang, 1995)는 미국 AP통신사와 일본 교도 통신사의 중국 천안문 운동 보도 분석을 통해 전자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강조했고, 후자는 운동을 탄압한 중국 지도자와 그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었음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할 반면,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고려와 관심 때문에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분석하고 있다.

김성태(Kim, 2000)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아시아에서 일어난 두 유사한 운동, 즉 천안문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했다. 두 신문은 광주민주화운동보다 천안문운동을 더 긍정적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두 신문이 미국 정부 대외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 정부는 민주화운동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투자에 미칠 악영향을 두려워하여 광주 시위를 탄압하는데 군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천안문운동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자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을 비난하고 천안문운동 참가자들을 인권과 자유 옹호자로서 긍정했다.

해방 이후의 한국 언론도 남북 관계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상대 지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긍정하는 보도 틀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보도 형태를 보면, 남한에 대한 뉴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북한에 대한 뉴스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뉴스가 대부분이었다(박정순, 1992). 남한의 언론은 북한보다 덜 극단적이기는 하나, 북한에 대한 보도가 긍정적이지는 않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는 더욱 반공주의 정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윤영철, 1992).

한국과 일본의 외교 보도 성향 역시 양국 간의 국제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영토 분쟁이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한 보도는 과거사와 맞물려 있으므로 더욱 극단적인 논조를 보인다(윤영철, 1998; 이은주, 2001). 과거사에 관한 한 국민 대다수가 반일 감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언론 역시 국민적 차원에서 합의되어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따르게 되며, 이러한 패러다임에 잘 들어맞는 일본 비판적 발언은 쉽게 뉴스가치를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외교 정세는 과거사 문제나 각국의 정치 현안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상호 인식에 대한 보도를 통해 파악되기도 한다. 국내 언론의 광복절 사설을 분석한 박용규(1995)는 국내 언론이 일제 잔재 청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지엽적 주장을 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영욱(2006)은 한국 언론의 중국과 일본 보도 연구에서 한국 신문의 일본

보도는 과거사 문제와 맞물리면서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려는 경향이 강하며, 중국 보도는 긍정·부정의 비율이 비슷함을 밝혔다. 또 김성해(2006)는 다른 분석을 통해서 한국 신문이 중국과 일본을 “의심스런 강대국”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친중 정책에 따라 중국에 대한 논조가 신문사별로 다름을 발견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8·15라는 한, 중, 일 3국이 공동으로 경험한 역사적 사건이 60주년을 맞아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3국 신문들이 8·15보도에 있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기사량과 기사 형식, 정보원을 통해 분석해보고, 아울러 보도 내용이 8·15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언론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민국 중심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각국 내에서도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신문들이 어떠한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수나 진보로 구분되는 신문의 이념과 국익과 자국의 대외 정책에 따른 국가 이념이 상충될 때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한·중·일의 각 신문은 8·15 보도의 기사량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한·중·일의 각 신문은 8·15보도에서 어떤 기사 형식에 치중하는가?

2-1: 기사 형식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2-2: 기사 형식은 신문의 이념적 성향(보수/진보)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한·중·일의 각 신문은 8·15 보도에서 어떤 정보원에 의존하는가?

3-1: 선택된 정보원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3-2: 선택된 정보원은 신문의 이념적 성향(보수/진보)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한·중·일의 각 신문은 8·15 보도에 대한 어떤 주제를 보도하는가?

4-1: 보도주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4-2: 보도주제는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보수/진보)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 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신문의 이념성을 고려하여 각 국가마다 진보적 논조의 신문과 보수적 논조의 신문을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국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 중에서 한국의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중국의 『인민일보』를 선정하였다.

한국의 보수지로는 『조선일보』를 선택하였다. 윤영철(1998)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국내 구독률이 가장 높고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문사의 보수적 논조가 보도 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는 2005년 12월 실시한 신문구독자 조사에서도 전체 신문 가운데 구독률 13.6%를 나타내며 최고의 구독률을 기록하고 있다(지역신문구독자조사, 2006). 반면, 국내 일간지 가운데 진보를 대표하는 신문으로는 『한겨레신문』을 선택하였는데, 우리나라 일간지의 구독 현황 실태 조사를 보면 『한겨레신문』의 주 독자층은 20~30대 화이트칼라 중산층이었

고, 독자의 62.2%가 스스로를 진보적인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일본의 보수지로는 『산케이신문』을 선택했다. 『산케이신문』은 강경극우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일간지로 알려져 있고, 황국사관에 입각하여 가장 보수우익적인 논조를 고수하고 있는 신문이기도 하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정론지로서, 일본 진보 성향의 대표 언론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뚜렷이 진보적인 논조를 지닌 일간지가 없고 대부분의 신문이 유사한 보도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지와 보수지의 구분을 두지 않고 중국 최대 일간지이자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사의 검색 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였다. 2005년은 8·15가 60주년이 되는 해였으므로 각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특집 보도를 실었고, 8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8·15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기사 데이터베이스(Kinds)를 이용하였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은 각 신문사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Asahi.com Perfect와 Sankei Archives)를 이용하였고 『인민일보』는 인민망(人民网)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다. 8월 15일을 지칭하는 단어가 국가마다 다름에 착안하여,<sup>2)</sup>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8·15 or 광복(光復)’,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은 ‘8·15 or 종전(終戰)’, 『인민일보』는 ‘8·15 or 항일(抗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897건의 기사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사는 제외하였다.<sup>3)</sup>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사’로 하였다. 각 기사의 분석을 통해 해당 기사가 어떠한 유형인지, 정보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8·15보도에 있어 어떠한

2) 한국은 광복절(光復節), 일본은 종전기념일(終戰紀念日), 중국은 항일전쟁승리기념일(抗日戰爭紀念日)이다.

3) 예를 들어, “광복절 행사로 교통 정체 극심”, “광복절 행사장 근무 중이던 경찰, 열차에 치어 숨겨”, “종전기념일 오늘의 프로야구” 등과 같이 8·15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측면을 강조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 3) 분석 방법

#### (1) 보도량

보도량은 기사의 건수(件數)로 측정하였다. 신문의 보도량은 지면의 양으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므로 신문의 면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다. 또한 각 신문마다 발행면수가 다르므로<sup>4)</sup> 면적을 통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도량은 기사의 건수로 측정하였다.

#### (2) 기사의 유형

윤영철(1998)은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보도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분석 대상 기사를 취재기사, 의견기사, 인터뷰, 독자투고로 나누어 기사의 유형을 파악하였고, 김수정과 조은희(2005)도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보도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 기사로 나누어 기사의 유형 분포를 분석하였다. 임영호(2005)는 기사의 종류를 스트레이트, 피쳐, 해설, 논설, 칼럼, 비평, 탐사의 총 7가지로 세분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기사의 분류를 크게 유목화하면 기자의 의견이나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문장을 구성한 스트레이트 기사와 집필자가 뉴스에 해석과 의견을 덧붙이는 의견기사로 나눌 수 있다. 의견기사는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설기사나, 논설, 칼럼도 의견 기사의 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보도 주체의 주관적 견해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표출되는지 여부를 강조하기 위해, 사실을 중심으로 육하

---

4) 각 신문의 2005년 8월 한 달 동안의 평균 일 발행면수는 『한겨레신문』, 29.5면; 『조선일보』, 46면; 『아사히신문』, 38면; 『산케이신문』, 29.7면; 『인민일보』, 13.6면이다.

원칙에 의거하여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집필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환기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의견기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3) 정보원

기사 작성에 있어 정보원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은 정보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가가 기사의 균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해왔다(Armstrong, 2004; Fico & Freedman, 2001; Grabe & Zhou & Barnett, 1999; Kurpius, 2002; Sumpter & Braddock, 2002; 이동근, 2004). 본 연구에서도 각 신문이 인용한 정보의 출처를 분석하였으며 직접 인용뿐 아니라 간접 인용 형태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원에 대한 유목은 예비분석을 통해 정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일반인, 상대국, 제4국의 6가지로 나누었고 그 외의 정보원들이 개입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정부기관은 정부의 공식발표와 아울러 정부 각료, 현직 군인, 정부 위원회, 정부 주관 기념사업회 등으로 규정하였다. 전문가는 교수나 언론인, 작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들로 규정하였다. 민간단체는 모든 비정부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일반인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과거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나 일반시민들로 규정하였다. 상대국의 의미는 한국과 중국 신문의 경우 일본 측, 일본 측은 한국이나 중국 측의 정보원을 이용했음을 뜻한다. 정보원이 한국, 중국,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일 때 이를 제4국으로 규정하였다.

각 기사마다 복수의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다른 정보원을 이용한 경우 이를 모두 코딩하였다.

### (4) 보도 주제

각 기사의 내용에서 보도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1차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주요 항목을 구축하였다. 5개의 항목은 과거회고, 자국동향, 상대국, 8·15의 의미, 그리고 제4국으로 설정하였다.

<표 1> 상위 및 하위 항목 분류와 조작적 정의

상위 항목	하위 항목	조작적 정의
과거 회고	전쟁정황	독립군 항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등의 전투 상황, 참전군인, 작전 내용 등을 강조한 기사
	피해상황	전쟁으로 인한 공핍, 부상 등 처절했던 당시 민중들의 삶을 강조한 기사
	당시정세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의 국제 혹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강조한 기사
	기타	그 외
자국 동향	기념행사	8·15 60주년 기념행사 및 관련 공연, 서적 출간 등에 대해 강조한 기사
	국내문제	8·15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연결하는 기사. 북한 방문단의 남한 방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정국 민영화 등
	추모격려	전사자를 추모하거나 생존해 있는 참전 군인을 격려하는 기사
	과거청산	8·15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강조한 기사. 한국의 친일 청산, 도쿄재판의 정당성 추중, 남경대학살 책임 규명 등
	기타	그 외
상대국	한·중	중국에 대해 언급한 한국 신문 기사
	중·한	한국에 대해 언급한 중국 신문 기사
	한·일	일본에 대해 언급한 한국 신문 기사
	일·한	한국에 대해 언급한 일본 신문 기사
	중·일	일본에 대해 언급한 중국 신문 기사
	일·중	중국에 대해 언급한 일본 신문 기사
8·15 의의	현대사	8·15와 자국의 현대사를 연결하는 기사
	미래적 인식	8·15로부터 자국의 미래지향점을 찾는 기사
제4국		8·15와 관련한 한·중·일 이외의 제4국의 의견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 기사
기타		그 외

이들 각각의 항목은 다수의 하위 유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회고’ 항목은 ‘전쟁 정황’, ‘피해 상황’, ‘당시 정세’로 구성된다. ‘자국 동향’ 항목은

‘기념행사’, ‘국내 문제’, ‘추모 격려’, ‘과거 청산’으로 구성된다. ‘상대국’ 항목은 각 국가별로 서로 상대 국가들을 언급한 기사들로 구성된다. ‘8·15의 의미’ 항목은 8·15가 ‘현대사’에 미친 영향과 ‘미래적 인식’으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제4국’ 항목은 한중일 3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강조한 기사들로 구성된다.

5개의 상위 항목과 각각의 하위 항목을 분석할 때 가장 강조된 측면을 우선시하여 대표 항목을 선정하였다. 하나의 기사에 두 개 이상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으나 기사의 논조를 파악하여 가장 강조되는 측면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1>은 강조된 측면에 대한 항목의 구분과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담고 있다.

코더 간의 신뢰도를 결정하기 위해 기사의 10%에 해당하는 67개의 기사를 임의로 표집하여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자 이외에 한중일 3개 국어에 모두 능통한 코더를 찾을 수 없어 한국어와 중국어가 능통한 한 명의 코더에게 한국 신문과 중국신문은 원문으로, 일본신문은 번역본으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홀스티(Holsti, 1969)의 의견일치도 공식에 따른 코더간 신뢰도는 기사 유형 97.2%, 정보원 84.3%, 강조된 측면 91.9%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별되었다.

## 4.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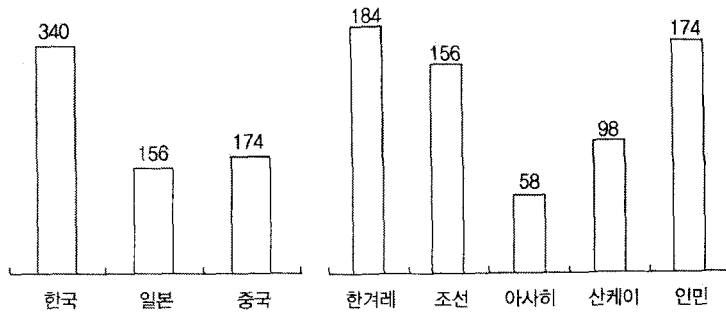
### 1) 보도량

각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한겨레신문』이 184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게재하였고, 『조선일보』가 156건의 기사를 실었다. 한국 신문에 이어 『인민일보』가 174건을 보도하였고, 일본의 두 신문은 『아사히신문』이 58건, 『산케이신문』이 98건으로 집계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신문 기사가 340건, 일본의 신문 기사가 156건, 그리고 중국 신문 기사가 174건으로 총

670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중국의 경우 단일신문을 채택하였고 발행면수가 다른 신문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감안한다면) 중국 신문이 8·15 관련 보도에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다른 두 국가에 비해 보도량이 현저하게 적었다.

일본은 8·15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가해자로 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국 스스로도 8·15를 패전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인식하여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8·15 보도량이 한국과 중국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일본의 언론들이 8·15보도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8월 15일을 한국은 광복절, 중국은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8·15를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국가별 기사량

<그림 2> 신문별 기사량

## 2) 기사유형

<표 2>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65.5%로 의견기사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문별 기사 유형을 보면 『한겨레신문』의 스트레이트

5) 『인민일보』의 2005년 8월 평균 일 발행면수는 13.6면으로 5개 신문사의 평균 발행면수인 31.4면에 훨씬 못 미친다.

&lt;표 2&gt; 기사 유형에 대한 신문별 교차분석

기사유형	신문별					합 계
	한겨레	조선	아사히	산케이	인민	
스트레이트	147 (79.9)	113 (72.4)	23 (39.7)	48 (49.0)	108 (62.1)	439 (65.5)
의견	37 (20.1)	43 (27.6)	35 (60.3)	50 (51.0)	66 (37.9)	231 (34.5)
합 계	184 (100.0)	156 (100.0)	58 (100.0)	98 (100.0)	174 (100.0)	670 (100.0)

( )안은 %

카이제곱=50.087, 자유도=4,  $p<0.001$ 

기사가 79.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조선일보』와 『인민일보』는 각각 72.4%, 62.1%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의견 기사가 60.3%로 많았고, 『산케이신문』 역시 51%가 의견 기사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의견 기사의 내용은 전쟁으로 인해 이별해야만 했던 가족의 슬픔 또는 전쟁이나 원폭 투하 등으로 인한 처참한 궁핍상 등이 주를 이루었다. 『산케이신문』 역시 민간인의 피해 상황을 의견기사 형태로 서술한 보도가 많았고, 현재 일본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나 시론, 사설 기사도 적지 않았다.

기사 유형을 국가별로 묶어 분석한 결과, 한국(76.5%)과 중국(62.1%)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은 반면, 일본은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의견기사(54.5%)가 더 많았다.

일본이 의견 기사가 많은 이유는 일반인 혹은 유명 인사들이 회고록 형식으로 과거를 회상한 기사가 장편으로 연재되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의 “전후 60년(戰後60年)”, 산케이신문의 “나의 전후 60년(私の戰後60年)”, “손자에게(孫へ)” 등의 기획 기사가 다수 연재됨으로써 당시를 겪었던 인물들의 체험담이 연일 보도되었다.

중국의 인민일보 역시 과거를 회고하는 기사가 기획물로 다수 연재되었으



<표 3> 기사 유형에 대한 국가별, 성향별 교차분석

기사유형	국가별			합 계	성향별		합계
	한국	일본	중국		진보	보수	
스트레이트	260 (76.5)	71 (46.5)	108 (62.1)	439 (65.5)	170 (36.6)	161 (63.4)	331 (66.7)
의견	80 (23.5)	85 (54.5)	66 (37.9)	231 (34.5)	72 (70.2)	93 (29.8)	165 (33.3)
합 계	340 (100.0)	156 (100.0)	174 (100.0)	670 (100.0)	242 (100.0)	254 (100.0)	496 (100.0)

( )안은 %

국가별 카이제곱=46.607, 자유도=2,  $p < 0.001$

성향별 카이제곱=2.629, 자유도=1,  $p = .105$

나, 스트레이트 형식을 띄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내용 또한 장교나 군인의 전쟁 활약상을 다룬 것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차이를 보였다. 국가별 기사 유형의 차이는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 < 0.001$ ).

한국과 일본의 경우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성향을 대변하는 신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념적 성향에 따른 기사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인민일보를 제외한 한겨레신문과 아사히신문을 진보지로, 조선일보와 산케이신문을 보수지로 묶어 교차분석을 시도한 결과 보수지와 진보지 간의 기사유형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 < .105$ ). 다시 말해 기사 유형에서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보수, 진보의 이념적 성향보다 자국 중심주의의 국가이익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한국 신문들은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에 치중하였고, 일본 신문들은 의견 기사에 보다 집중하였다. 결국 일본의 신문들은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도하기 보다는 의견의 형태로 8·15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정보원

기사가 어떤 정보원에 의존하는지를 분석하고자 매 기사마다 복수의 정보원을 모두 인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 기사당 정보원의 수는 0개에서 최대 3개까지 집계되었다.

신문별 정보원을 살펴보면 한겨레신문(28.8%)과 인민일보(32.6%)는 정부기관의 정보를 많이 이용한 반면, 아사히신문(37.3%)과 산케이신문(42.1%)은 일반인의 정보를 주로 인용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전문가(27.9%)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기관(28.8%)에 이어 전문가(23.5%)를 주 정보원으로 삼았고, 조선일보는 전문가(27.9%)에 이어 정부기관(24.7%)의 정보를 주로 인용하였다. 아사히신문도 일반인(37.3%) 정

<표 4> 정보원에 대한 신문별 교차 분석

	신문별					합 계
	한겨레	조 선	아사히	산케이	인 민	
정부기관	49 (28.8)	38 (24.7)	15 (29.4)	13 (17.1)	46 (32.6)	161 (27.2)
전문가	40 (23.5)	43 (27.9)	4 (7.8)	9 (11.8)	18 (12.8)	114 (19.3)
민간단체	26 (15.3)	23 (14.9)	2 (3.9)	3 (3.9)	0 (0.0)	54 (9.1)
일반인	21 (12.4)	19 (12.3)	19 (37.3)	32 (42.1)	40 (28.4)	131 (22.1)
상대국	12 (7.1)	12 (7.8)	3 (5.9)	4 (5.3)	5 (3.5)	36 (6.1)
제4국	8 (4.7)	10 (6.5)	3 (5.9)	14 (18.4)	8 (5.7)	43 (7.3)
기타	14 (8.2)	9 (5.8)	5 (9.8)	1 (1.3)	24 (17.0)	53 (9.0)
계	170 (100.0)	154 (100.0)	51 (100.0)	76 (100.0)	141 (100.0)	592 (100.0)

( )안은 %

카이자승=119.266, 자유도=24,  $p < 0.001$

보원의 뒤를 이어 정부기관(29.4%)을 정보원으로 인용한 기사가 많았으나, 산케이신문은 정부기관(17.1%)과 제4국(18.4%) 정보원이 비슷한 비율로 등장하였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제4국 정보원이 다른 신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일본의 우파 성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대만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후 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기사도 있었다. 인민일보는 정부기관(32.6%)과 일반인(28.4%) 정보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정보원의 직업이 전, 현직 군인인 경우가 많았다.

국가별 정보원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정부기관(26.9%)의 정보를 가장 많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전문가(25.6%)가 많이 나타났고,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단체(15.1%)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일반인이 28.4%로 정부기관(3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은 일반인이 가장 높은 40.2%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정부기관이 22%, 제4국이 13.4%로 한국, 중국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 신문은 정부기관과 전문가 정보원의 합의 비율이 전체의 50%를 상회한 반면, 일본 신문은 40.2%가 일반인 정보원이었다. 일본 신문이 인용한 일반인 정보원은 전쟁을 겪은 당사자로서 그들의 체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중국 신문은 정부기관과 일반인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한국 신문은 정부기관으로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각료가 등장한 반면, 중국 신문은 주석과 군인들이 정부기관으로 등장한 기사가 많았다. 또한 중국신문은 다른 국가에 비해 기념서적 출간이나 공연에 대한 비평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작가나 연출자가 정보원으로 인용된 경우가 많았다.

정보원 분석을 통한 국가 간 차이를 보면 한국 신문들이 주로 정부기관과 전문가의 입장과 견해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아 다른 두 국가보다 보다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반인에 대한 정보 의존이 매우 높고, 전문가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다른 두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공식적 입장과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는 반면 일본은 일반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담아

&lt;표 5&gt; 정보원에 대한 국가별, 성향별 교차 분석

기사유형	국 가 별			합 계	성 향 별		합 계
	한국	일본	중국		진보	보수	
정부기관	87 (26.9)	28 (22.0)	46 (32.6)	161 (27.2)	64 (34.5)	51 (22.2)	115 (25.5)
전문가	83 (25.6)	13 (10.2)	18 (12.8)	114 (19.3)	44 (19.9)	52 (22.6)	96 (21.3)
민간단체	49 (15.1)	5 (3.9)	0 (0.0)	54 (9.1)	28 (12.7)	26 (11.3)	54 (12.0)
일반인	40 (12.3)	51 (40.2)	40 (28.4)	131 (22.1)	40 (18.1)	51 (22.2)	91 (20.2)
상대국	24 (7.4)	7 (5.5)	5 (3.5)	36 (6.1)	15 (6.8)	16 (7.0)	31 (6.9)
제4국	18 (5.6)	17 (13.4)	8 (5.7)	43 (7.3)	11 (5.0)	24 (10.4)	35 (7.8)
기타	23 (7.1)	6 (4.7)	24 (17.0)	53 (9.0)	19 (8.6)	10 (4.3)	29 (6.4)
계	324 (100.0)	127 (100.0)	141 (100.0)	592 (100.0)	221 (100.0)	230 (100.0)	451 (100.0)

( )안은 %

국가별 카이제곱=107.457, 자유도=12,  $p<0.001$ 성향별 카이제곱=11.02, 자유도=6,  $p=.092$ 

내는 비공식적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제 4국의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일본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일반인과 제 4국의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적은 기사량과 함께 8·15보도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태도를 드러내는 요인이 된다.

보수지와 진보지에서 이용한 정보원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92$ ). 진보 성향의 신문이 보다 정부기관에 의지하고 있고, 보수 성향의 신문이 전문가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신문이 인용하는 정보원의 차이 역시 기사의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문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소속 국가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4) 보도 주제

<표 6>은 각 신문이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상위항목과 하위항목별로

<표 6> 보도 주제에 대한 항목별 분포

상위	하위	신문별					합계
		한겨레	조선	아사히	산케이	인민	
과거 회고	전쟁정황	2(1.1)	2(1.3)	0(0.0)	4(4.1)	42(42.1)	50(7.5)
	피해정도	0(0.0)	3(1.9)	11(19.0)	18(18.4)	6(3.4)	38(5.7)
	당시정세	6(3.3)	18(11.5)	15(25.9)	10(10.2)	14(8.0)	63(9.4)
	기타	0(0.0)	0(0.0)	2(3.4)	0(0.0)	8(4.6)	10(1.5)
	계	8(4.3)	23(14.7)	28(48.3)	32(32.7)	70(40.2)	161(24.0)
자국 동향	기념행사	85(46.2)	51(32.7)	9(15.5)	22(22.4)	59(33.9)	226(33.7)
	국내문제	25(13.6)	30(19.2)	3(5.2)	7(7.1)	0(0.0)	65(9.7)
	추모격려	8(4.3)	14(9.0)	0(0.0)	3(3.1)	19(10.9)	44(6.6)
	과거청산	20(10.9)	4(14.8)	0(0.0)	3(3.1)	0(0.0)	27(4.0)
	기타	10(5.4)	12(7.7)	5(8.6)	3(3.1)	2(1.1)	32(4.8)
계	148(80.4)	111(71.2)	17(29.3)	38(38.8)	80(46.0)	394(58.8)	
상대국	한-중	1(0.5)	2(1.3)	0(0.0)	0(0.0)	0(0.0)	3(0.4)
	중-한	0(0.0)	0(0.0)	0(0.0)	0(0.0)	2(1.1)	2(0.3)
	한-일	10(5.4)	5(3.2)	0(0.0)	0(0.0)	0(0.0)	15(2.2)
	일-한	0(0.0)	0(0.0)	1(1.7)	0(0.0)	0(0.0)	1(0.1)
	중-일	0(0.0)	0(0.0)	1(1.7)	0(0.0)	3(1.7)	4(0.6)
	일-중	0(0.0)	0(0.0)	2(3.4)	3(3.1)	0(0.0)	5(0.7)
	계	11(6.0)	7(4.5)	4(6.9)	3(3.1)	5(2.9)	30(4.5)
8·15 의의	현대사	8(4.3)	6(3.8)	2(3.4)	2(2.0)	0(0.0)	18(2.7)
	미래인식	8(4.3)	7(4.5)	6(10.3)	17(17.3)	13(7.5)	51(7.6)
	계	16(8.7)	13(8.3)	8(13.8)	19(19.4)	13(7.5)	69(10.3)
제4국		1(0.5)	1(0.6)	1(1.7)	6(6.1)	5(2.9)	14(2.1)
기타		0(0.0)	1(0.6)	0(0.0)	0(0.0)	1(0.6)	2(0.3)
계		184(100.0)	156(100.0)	58(100.0)	98(100.0)	174(100.0)	670(100.0)

( ) 안은 %

보여주고 있다. 상위 항목을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신문들이 ‘과거 회고’와 ‘자국 동향’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각각 80.4%, 71.2%로 대부분의 기사에서 ‘자국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회고 항목은 한겨레신문은 4.3%에 그쳤고, 조선일보도 14.7%에 머물렀다. 인민일보는 자국동향(46.2%)과 ‘과거회고’(40.2%)를 비슷한 비율로 강조하고 있었다. 아사히신문 기사의 강조된 항목은 ‘과거회고’가 48.3%, 뒤를 이어 ‘자국 동향’이 29.3%를 차지했다. 산케이신문도 ‘과거회고’(32.7%)와 ‘자국동향’(38.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 신문들이 모두 ‘자국동향’ 내지 ‘과거회고’ 항목을 강조한 사실에 이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8·15의 의의’ 항목이었다. 한겨레, 조선일보, 인민일보가 모두 10% 미만으로 8·15의의에 주목한 반면, 일본은 아사히신문이 13.8%, 산케이신문이 19.4%의 기사에서 8·15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었다.

각 신문의 보도 주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위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신문, 조선일보와 달리 아사히신문과 인민일보는 ‘과거회고’ 항목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세부적인 하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민일보가 ‘전쟁 상황’(24.1%)에 집중한 반면, 산케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은 ‘피해정도’에 주목하여 각각 18.4%, 19.0%를 나타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다른 신문에 비해 ‘당시 정세’에 관심을 보였다(25.9%). 이는 8·15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일본군에 맞서 용맹하게 싸웠던 팔로군의 활약상을 그린 기사가 많았던 반면, 일본은 가족과 떨어져 전쟁터로 떠나야만 했던 징용군의 슬픔, 일본 내에 남아 생계를 연명해야 했던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의 이픔 등과 같은 역사적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주장하는 기사가 많았다.<sup>6)</sup>

6) 이러한 피해자로서의 억울함에 대한 주장과 여론의 확대를 도모하는 기사가 두드러진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2005년 8월 1일자 보도에서 「정의인가 보복인가, 다시 보는 도쿄재판,이라는 4건의 기획 기사를 연재하였는데 그 리드문은 다음과 같다. “중전으로부터 60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일본인의 의식은 ‘과거의 일본=악’이라고 간주하는 도쿄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고 패턴이 외교, 국

‘자국 동향’의 하위항목에서는 5개 신문 모두 ‘기념행사’ 항목이 가장 많았다. 8·15 60주년을 맞아 각국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민일보가 ‘기념행사’ 보도에 집중했는데 항일기념 예술 공연이나 기념 서적 간행에 대한 비평 기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다.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항일기념관이 개관함에 따라, 여기에 참석한 후진타오 주석 및 당 간부의 연설 내용에도 기사가 집중되었다.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국내문제’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는데, 이는 북한 방문단의 남한 방문과 현충원 참배에 대한 진보, 보수 진영 간의 의견 갈등에 많은 기사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신문이 과거청산 문제에 집중한 반면 나머지 신문들은 과거청산 이슈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인민일보는 군인, 간부 및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보도하는 기사가 다른 신문보다 많았다. 그러나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모두 ‘추모격려’에 대한 보도는 거의 전달하지 않았다.

‘상대국’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해 언급한 경우와 중국이 일본을 언급한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는 8·15라는 사안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을 전쟁 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15 의의’ 항목에서는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이 비교적 크게 반응하였는데, 특히 8·15로부터 미래적 지향점을 찾는 기사가 많았다(아사히 10.3%, 산케이 17.3%). 8·15 60주년을 역사의 전환점으로 여기고 진보적인 역사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인민일보 역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신문 모두 8·15를 새로운 역사의 출발로 인식하는 측면을 강조한 반면,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8·15가 현재 우리 사회에 갖는 의의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로 바라보는 양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

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을 속박해 온 도쿄재판은 무엇이었는데? 도쿄 재판을 실행한 연합국군총사령부 간부나 전승국의 판사조차 그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른, ‘승자’에 의한 ‘보복의 중재’를 검증한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이 8·15의 의의를 인식하는 방향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극우파 인사의 견해를 인용하며 일본인의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거나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강조한 반면,<sup>7)</sup> 아사히신문은 8·15의 의의에 대해 주변국과의 평화를 유지하여 미래의 동북아시아 관계를 준비하자는 내용 혹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sup>8)</sup>

‘제4국’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산케이신문이 가장 많았는데, 산케이신문이 주로 언급한 제4국은 대만이었다. 대만은 일본과 정치적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일본의 국수주의적 향방을 지지하는 국가로 묘사<sup>9)</sup>된 기사가

- 
- 7) 예를 들어, 산케이신문은 2005년 8월 9일자 사설에서 “예절이란 고개를 숙이는 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지의 발로다. 오늘의 일본과 같이 단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예절이 아니라 비굴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히는가 하면 2005년 8월 14일자 사설에서는 “전후의 민주국가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한 명도 죽이는 일 없이 전후 60년을 거친 몇 안 되는 국가로서 오늘 존재하고 있다.……(중략)……중국이나 한국, 북한의 대일(對日) 역사 인식은 동시대사를 너무 일방적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하고, 역사 인식보다는 정치적 선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후 60년은, 일본이 그러한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야 할 중요한 고비이며, 이런 의미에서도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8) 아사히신문은 2005년 8월 15일자 사설에서 “부여된 임무에만 충실했던 것이 국민 대부분이었다. 군인은 군인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혹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강요되어진 모습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나라 그 자체의 지향점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라는 절실한 것은 보지 못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는 좁은 세계관에 갇혀 있었다.……(중략)……오늘은 추모만이 아닌 ‘부여된 임무에만 눈이 멀어져 있던 것은 아닌지’를 각자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 9) 『산케이신문』은 2005년 8월 6일자 보도에서 “60번째의 종전기념일을 앞에 두고 대만 전 총통인 리덩후이 씨(82)가 본지와외 회견을 통해 ‘타국이 야스쿠니 신사를 운운할 자격은 없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뜻과 시간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펴며 고이즈미 수상의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했다.……(중략)…… 그에 따르면 중한의 반일 운동 고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야 한다.……(중략)…… 그것은 일본을 앞지르기 위한 유일한 정치적 요구이자 압



많았다. 반면 인민일보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독일 등의 국가에 대해 두루 언급하였는데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연합군 신분으로 중국에서 항일 전쟁에 참가했던 외국인 장교들의 전투 업적을 추모하고 기리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에 대해 언급했던 소수의 기사는 포로로 팔로군에 잡혀온 일본군이 결국 팔로군과 절친한 친구가 되고, 모택동을 위해 용맹하게 싸웠다는 내용의 기사와 현재 일본의 우파적인 정치 성향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표 7>은 보도된 내용을 국가별, 그리고 신문의 이념적 성향별로 묶어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가별 비교를 보면, 한국의 기사는 ‘자국 동향’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76.2%). 이는 국내에서 과거청산

<표 7> 보도 주제에 대한 국가별, 성향별 교차분석

기사유형	국 가 별			합 계	성 향 별		합 계
	한국	일본	중국		진보	보수	
과거회고	31 (9.1)	60 (38.5)	70 (40.2)	161 (24.0)	36 (14.9)	55 (21.7)	91 (18.3)
자국동향	259 (76.2)	55 (35.3)	80 (46.0)	394 (58.8)	165 (68.2)	149 (58.7)	314 (63.3)
상대국	18 (5.3)	7 (4.5)	5 (2.9)	30 (4.5)	15 (6.2)	10 (3.9)	25 (5.0)
8·15 의의	29 (8.5)	27 (17.3)	13 (7.5)	69 (10.3)	24 (9.9)	32 (12.6)	56 (11.3)
제4국	2 (0.6)	7 (4.5)	5 (2.9)	14 (2.1)	2 (0.8)	7 (2.8)	9 (1.8)
기타	1 (0.3)	0 (0.0)	1 (0.6)	2 (0.3)	0 (0.0)	1 (0.4)	1 (0.2)
계	340 (100.0)	156 (100.0)	174 (100.0)	670 (100.0)	242 (100.0)	254 (100.0)	496 (100.0)

( )안은 %

국가별 카이자승=121.729, 자유도=10,  $p < 0.001$

성향별 카이자승=10.419, 자유도=5,  $p = 0.064$

력인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그 외 8월 15일과 26일자 국제면 등에서도 같은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의 논쟁이 아직 일고 있고 북한 방문단의 현충원 참배 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회고’가 뒤를 이었으나 비율은 큰 폭으로 줄었다(9.1%). 일본의 경우는 가장 많은 38.5%가 ‘과거 회고’ 항목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35.3%가 ‘자국동향’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국의 경우는 46%가 ‘자국동향’ 항목을 보였고, 뒤를 이어 40.2%가 ‘과거회고’를 나타냄으로써 이 두 항목에 대부분의 기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신문별 분석해서 언급했듯이 세부적 내용에서는 중국과 일본 신문들이 ‘과거회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민일보의 ‘과거회고’ 기사는 “영원 불후한 공적, 항일영웅보(永遠的豐碑,抗日英雄譜)”라는 기획으로 항일 전쟁에 공적을 세운 군인의 업적을 소개하는 연재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일본 신문들은 일반인들이나 유명인사가 쓴 “전후60년(戰後60年)”이라는 칼럼을 통해 비참했던 과거를 돌이키는 방향으로 기사가 집중되었다. 그 밖에도 일본 신문의 경우 ‘8·15의 의의’와 ‘제4국’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강조하고 있었다. 국가에 따른 강조 항목의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보수 혹은 진보 성향에 따른 보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검증 결과 신문사의 논조에 따른 강조된 항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p=.064$ ). 한국과 일본의 신문들을 보수와 진보지로 묶었을 때 모두 ‘자국동향’에 가장 집중하였고 다음으로 ‘과거회고’를 강조하는 등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별로 분류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결국 8·15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문보도는 각 신문사의 이념이나 논조보다는 국익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 성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선일보와 산케이신문은 자국에서는 보수지로 인식되지만 두 신문의 정치적 성향이 국익을 초월하여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겨레신문과 아사히신문도 자국에서는 각각 진보지로 대표되지만 두 신문 간의 정치적 논조는 국익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두 신문이 강조하는 항목의 비율은 서로 유사하지만, 보도

성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에 주목해야한다. 산케이신문은 극우파 인사의 견해를 주로 인용하며 일본이 개전(開戰)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며 총리의 신사 참배를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 기반을 두어 미래 동북아시아 관계를 준비해야 하며 신사 참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각국이 8·15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3개국의 신문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8·15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국가별로 존재하며 또한 국가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지와 진보지가 동일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별 그리고 신문별로 8·15 기사를 보도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보도했는지, 어떠한 기사 유형을 이용하였는지, 기사 작성을 위해 어떤 정보원에 의존했고, 어떤 항목을 특히 강조하였는지 네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먼저, 기사량은 한국과 중국신문에 비해 일본 신문들의 기사가 현저하게 적었다. 유형에 있어서 한국은 삼국 중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과 중국 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로 8·15 관련 기사를 다루었지만, 일본 신문은 대부분 의견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자인 한국과 중국이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반면, 가해자인 일본은 사실 그대로보다는 관점이 가미된 해석이나 논설 등의 의견을 더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정보원은 주로 정부기관과 전문가였으나 일본은 일반인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단체를 정보원으로 삼은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에서 민간의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하고 기념하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기관, 특히 군인 정보원을 집중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감상적 피해주의보다는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전투적 승리를 강조하는 다소 공격적인 인식 태도를 드러내었다. 한편, 일본 언론이 전쟁을 주도했던 자국 정부의 목소리는 줄이고, 일반인의 전쟁 피해 목소리를 크게 한 것은 스스로의 전쟁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제4국 정보원으로 대만을 제차 거론하였는데, 대만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보수적 정치 성향을 긍정하는 국가로 묘사됨으로써 일본이 국내 여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여론의 지지, 나아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국가의 지지까지 얻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8·15에 대한 각국의 역사 인식은 강조된 항목의 분석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분단된 남북 현실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기사가 가장 풍부했다. 중국은 인민의 힘으로 일본 제국을 물리쳐냈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보도함으로써 중국 인민의 강인함과 단결력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보도 성향은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했던 과거사 인식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분열된 반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분류가 통계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전쟁 당사자인 일본 내 신문들은 보수적 혹은 진보적 성향에 따라 8·15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과 중국의 사과나 배상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일본인의 정신력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한국,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립적인 시각에서 종전기념일을 보도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삼국의 신문들은 8·15에 대해 분명한 보도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 언론은 8·15를 현대사의 시발점으로 보고 남북 분단 상황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중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일본을 가해자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과거사 반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는데, 이는 당시 일본 내의 정치 구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정치 외교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은 국가적 정체성과 국익을 위해 역사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혹은 은폐함으로써 자국의 역사 인식을 강조하여 부각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한국의 언론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과거사를 고찰한 반면, 본 논문에서는 8·15라는 3국의 동일 사안에 대해 3국의 언론을 모두 분석했음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3국의 신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8·15 보도에 있어 국익의 이데올로기는 기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디어 조직의 관행, 이념적 성향 등을 초월하여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며, 이러한 보도 경향은 자국민에게는 사회책임주의로, 타국민에게는 국수주의로 받아들여져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8·15라는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적 사안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각 기사에 나타난 명백한 단어와 문장들을 분석하였으나 그 이면에 담긴 담론을 분석적으로 살피는 작업은 부족했다.

둘째, 기사의 유형 분석에서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 기사로 양분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유형들의 특색을 드러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소수이긴 했지만 독자 투고도 의견 기사로 일괄 분석함으로써 신문사 고유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순수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가 한·중·일 3국 신문의 8·15에 대한 인식 차이에 주목한 만큼, 국가 이익과 지배이데올로기를 기사 논조의 가장 거시적인 영향력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의 경우

10) 김성해(2006)의 연구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고의적으로 아시아를 무시하고 과거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정국 개혁으로 인한 일본 내 보수 세력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보수와 진보지간에 입장 차이가 명확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향후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고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8·15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인식을 고찰하면서 신문이라는 매체에 국한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방송과 잡지 등을 아울러 분석한다면 보다 면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Ⅰ 참고문헌

- 김성해 (2006). 미디어에 나타난 이웃 II -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중국 및 일본 보도(1996~2005) 프레임과 담론 분석. 『한국 언론의 중국과 일본 보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수정·조은희 (2005).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항목 비교연구. 『한국 언론학보』, 제49권 6호, 109~139.
- 김영옥 (2006). 미디어에 나타난 이웃 I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중국 및 일본 보도(1996~2005). 『한국 언론의 중국과 일본 보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경숙 (2000).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항목 분석: 의학 분업 뉴스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권 2호, 310~340.
- 박용규 (1995). 언론과 일제잔재청산 - 3·1절, 광복절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광복50년, 언론50년. 『신문과 방송』, 1995년 8월호, 42~46.
- 박정순 (1992). 이념적 보도와 객관적 보도 - 남북한 신문의 남북보도 사례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28권, 183~212.
- 백영서·최영식 (1997).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 안수찬 (2005.4.28). 서로 다른 기억 8·15 뿌리박힌 갈등. 『한겨레신문』, 6.
- 윤영철 (1992). 언론환경의 변화와 보도의 다양성 -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와 그 한계. 『한국언론학보』, 제28권, 267~308.
- \_\_\_\_ (1998). 한·일 신문의 독도 관련 분쟁 보도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9권, 99~125.
- 이동근 (2004).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찰: 정보원 및 항목 분석을 통하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4호, 218~243.

- 이옥연 (2000). 동아시아론의 지형학. 『철학과 현실』, 제45권, 180~194.
- 이은주 (2001). 『역사교과서 개정사건에 대한 한국과 일본 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교 연구: 국가이익과 신문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창호 (2004). 뉴욕타임스, 아랍뉴스, 중동타임스 이라크전쟁 보도 비교 『한국언론학보』, 제48권 6호, 84~109.
- \_\_\_\_\_ (2005). 『전쟁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영호 (2005). 『신문원론』. 서울: 한나래.
- 정재서 (1999). 『동아시아 연구 글쓰기에서 답론까지』. 서울: 살림.
- 지역신문구독자조사 (2006).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최진덕 (1999). 유교를 둘러싼 동아시아론의 두 양상. 『사회비평』, 제20권, 85~98.
- 荒 松雄(아라 마쯔오) (1970). 『世界歴史 第4巻』. 東京: 岩波書店.
- Armstrong, C. L. (2004). The Influence of Reporter Gender on Source Selection in Newspaper Stori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139~145.
- Breed, W. (1955). Social Control in the Newsroom: A Functional Analysis, *Social Forces*, 33, 326~335.
- Browning, N., Grierson, D. & Howard, H. H. (1984). Effects of Conglomerate Takeover on a Newspaper's Coverage of the Knoxville World's Fair, *Newspaper Research Journal*, 6, 30~38.
- Chomsky, N. (2002). *Understanding Power: Indispensable Chomsky*. 이종인 역 (2006). 『츨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서울: 시대의 창.
- Coulson, D. (1994). Impact of Ownership on Newspaper Quality. *Journalism Quarterly*, 71, 403~410.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ico, F. & Freedman, E. (2001). Setting the News Story Agenda: Candidate and Communication in News Coverage of a Governor's Rac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3), 437~449.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Vintage Books.

- Grabe, M. E. & Zhou, S. & Barnett, B. (1999). Sourcing and Reporting in News Magazine Program: 60 Minutes versus Hard Cop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2), 293~311.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81). *Forms of Talk*.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 Holsti, O. B.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Addison-Wesley, MA: Reading.
- Jung, J. (2002). How Magazine Covered Media Companies' Mergers: The Case of the Evolution of Time Inc.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9(3), 681~696.
- Kim, S. (2000). Making a Difference: U. S. Press Coverage of the Kwangju and Tiananmen Pro-Democracy Movement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1), 22~36.
- Kurpius, D. D. (2002). Sourcing and Civic Journalism: Changing Patterns of Report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9(4), 853~865.
- Lee, T. & Hwang, H. (1997). The Impact of Media Ownership: How Time and Warner's Merger Influences Time's Cont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EJMC, Chicago, IL.
- Li, C. & Yang, J. (1995). Foreign News and National Interest: Comparing US and Japanese Coverage of a Chinese Student Movement. *Gazette*, 56, 1~18.
- Lippman, W. (1997). *Public Opinion*. Boston: Indypublish.
- Mailnkina, O. V. & McLeod, D. M. (2000). From Afganistan to Chechnya: News Coverage by Izvestia and New York Tim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1), 37~49.
- Pan, Z., Lee, C., Chan, J. M. & So, C. Y. (1999). One Event, Three Stories: Media Narratives of the Handover of Hongkong in Cultural China, *Gazette*, 61, 99~112.
- Severin, W. J. & Tankard, J. W. (1992). *Communication Theories*. 김홍규·박천일·안민호 역 (2005).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출판.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Longman.

Sumpter, R. & Braddick, A. (2002). Source Use in a 'News Disaster' Account: A Content Analysis of Voter News Service Stori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9(3), 539~558.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서울: 나남출판.

White, D. M. (1950). The Gatekeeper: A Case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27, 383~390.

(최초 투고 2006.11.30, 최종 원고 제출 2007.1.31)

**A Comparative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s in Three  
Countries—Korea, China and Japan—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Historical Event,  
8 · 15 Independence Day**

Ra-Mi Seo

Master's student

School of Communications & Media, Seoul Women's University

Jae-Min Jung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s & Media,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newspapers covere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historical event, 8·15 Independence Day. Specifically, five newspapers from three countries were content-analyzed to see differences, if any, based on country level and political ideology of the newspaper. The findings showed that Japanese newspapers yielded less amount of coverage than those of Korea and China. The newspapers of Korea and China used straight news format, while Japanese newspapers used opinion news format. In terms of information source, Korean newspapers and Chinese newspapers mainly reli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while Japanese newspapers took the *information from citizen*. The difference also revealed that Korean newspapers focused on domestic situation frame and the other countries more emphasized past memory of the War times. Consequently, the three countries showed clearly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same historical event. These distinctions were caused from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political ideology of the newspaper.

**Key words:** content analysis, 8·15, frame, information source, national interest